



## News Letter

Subject: **20120807 - Celebration of Victory of the 2012 Peace Cup**

Date: 12-08-07



## Celebration of Victory of the 2012 Peace Cup and Cheon Jung Gung Hoon

**Dok Hae** - 6.6 by the Heavenly Calendar (July 17th)



True Parents cutting a cake in celebration of the Peace Cup victory.



Declaring the opening: True Father



True Parents watching the opening game.





The players of Hamburg received the prize money and Peace Cup and cheered

 **International President Hyung Jin Moon's Twitter** ▶ [lovintp](#)



**lovintp** 문형진.미연아

동일교 목사-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섬기는 사람, 성령의 은혜로 털어냈는 회개한 죄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녀, 참부모님 억만세 진동수행자. 천복금(동일교 세계본부): 서울시 용산구 3가 63-379

<http://www.tongilgyo.org>

**July 21st, Hoon Dok Hae:** During the Seven Year Official Course, after three and a half years, people usually got tired. At that time, Satan will invade you economically and physically. If you cannot overcome it, you will not survive. During the Seven Year Official Course, you should bring Satan to his knees spiritually. Aju.

**July 22nd, Hoon Dok Hae:** You can love nature and human beings. You should know that if you cannot love nature and human beings, you will not love God. As all things are God's symbolic beings and human beings are God's substantial beings, a person who can love nature and human beings, can love God. Aju!

**July 23rd, Hoon Dok Hae:** My being alive and acting is not meaningless; it has a purpose. The purpose of human life is to realize true love. The value of human existence will be ultimately decided by true love. How wonderful it is! Aju.

**🔴 Dr. Kook Jin Moon, lecturing 'Freedom Society' to church members who participated at the Original Divine Principle Workshop for Japanese members**

July 20th, 2012. 4 pm

On this day, Dr. Kook Jin Moon gave a lecture to 1200 church members who participated at the Original Divine Principle Workshop for Japanese members at the Central Training Center.



**🔴 Dr. Kook Jin Moon, lecturing 'Freedom Society' to the special trainees, including blessed families from all over the world.**

- July 23rd, 2012. 4 pm

Dr. Kook Jin Moon gave a lecture with titled 'Freedom Society' to 1,300 special trainees who are blessed families from all over the world. Before his lecture, there were reports from the National HQ of HSA-UWC Korea Headquarters, World Mission Headquarters and the PR Department of Tongil Group. Subsequently, the trainees watched a VOD on the special documentary broadcast titled "The Kingdom of Rev. Moon" on Al-Jazeera as well as the interview with Dr. Moon on TV Chosun.





 **Working level meeting of providential institutions** - July 24, 2012. 4 pm


On this day, at the 13th floor auditorium in the Dowon Building, the working level meeting for providential institutions was held. Dr. Moon and about 20 hands-on workers attended this meeting.





\* Yonhap News: Peace Cup soccer, HeungMon Son, Winning the Championship Cup

## 피스컵 축구 손흥민 "우승이다"

 연합뉴스 기사입력 2012-07-22 22:14



(수원=연합뉴스) 신영근 기자 = 22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2 피스컵 대회 결승 한국의 성남 일화화과 독일 함부르크SV의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 우승을 차지한 함부르크 손흥민(오른쪽)이 우승컵을 들고 동료와 함께 기뻐하고 있다. 2012.7.22

\* Chosun Tims: Hyun Jub Seok, faded ‘Fantastic Overhead Kick’ ... Hamburg, winning the Peace Cup

chosun.com **스포츠**

## 축구· 석현준 빛바랜 '환상의 오버헤드킥'...함부르크, 피스컵 우승

조선닷컴

독일 분데스리가의 함부르크SV가 2012 피스컵 국제클럽 축구대회에서 우승했다.

함부르크는 22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성남 일화와의 결승전에서 마쿠스 베리의 결승골로 1-0으로 승리했다.

첫 출전에서 우승컵을 차지한 함부르크는 상금 150만 달러(약 17억)를 가져갔고, 대회에 5번 연속 출전한 성남은 첫 우승의 기회를 놓쳤다.

성남과 전반을 득점없이 비긴 함부르크는 후반 손흥민을 투입하며 본격적인 공세에 나섰다.

치열한 중원 싸움 속에 팽팽하게 이어지던 경기는 '행운의 골'이 승부를 갈랐다.

후반 36분 함부르크의 마르셀 안센이 날린 슈팅을 성남의 골키퍼 정산이 쳐냈지만 공교롭게도 텅 빈 골대 앞에 있던 마쿠스 베리의 가슴으로 날아갔다. 베리는 가슴으로 공을 밀어 넣어 선제 결승골을 터뜨렸다.

앞서 열린 3·4위전에서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선덜랜드가 석현준이 주장 완장을 찬 네덜란드의 흐로닝언을 3대 2로 격파했다.

석현준은 0대 1로 뒤진 전반 37분 동료 데 레우프의 헤딩 패스를 받아 환상적인 오버헤드킥으로 그림 같은 동점골을 터뜨렸다.

흐로닝언은 전반 43분 미첼 웨트의 골로 역전에 성공했다. 하지만 후반 43분 프레이저 캠벨에게 동점골을 내준 뒤 추가시간에 라이언 노블에게 역전골을 내줘 아쉽게 패배했다.

후반 19분 상대 선수와 부딪혀 부상으로 교체된 석현준은 경기후 인터뷰에서 "마지막 4분 안에 골이 들어간 게 실망스럽다. 차라리 내가 뛰었다면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면서 "아직도 화가 난다"고 말했다.









19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2 피스컵 수원' 국제클럽 축구대회 성남과 선덜랜드의 경기에 많은 관중이 응원을 하고 있다. 수원=김용학 기자

## “유럽축구 직접 보자” 피스컵 관중 가득

### 개막식부터 열기 후끈... 4일간의 열전 시작

‘핑! 핑! 핑!’

축포와 함께 축구를 통한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2012 피스컵 수원’이 그 성대한 막을 올렸다. 19일 경기장에 모인 수많은 관중들은 뜨겁게 열광하면서 축제의 시작에 환호했다.

2003년 시작해 올해로 5회째를 맞은 ‘2012 피스컵 수원’이 19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개막했다. K리그의 자존심 성남 일화화과 EPL의 명가 선덜랜드, 독일 분데스리가의 원년멤버 함부르크, 네덜란드 에레디비지에 신흥강호 흐로닝언이 4강 토너먼트로 22일까지 자웅을 겨룬다.

그 시작을 선언한 19일 저녁 수원월드컵경기장은 흐린 날씨 속에서 관중들의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다. 성남과 선덜랜드의 개막경기를 앞두고 성남의 팬클럽은 대형 깃발을 흔들며 경기 전부터 흥분의 도가니에 빠졌고, 개막전에서 1-0으로 성남 일화가 승리한 순간, ‘신태용 사단’의 결승진출을 축하하며 힘차게 ‘성남 파이팅!’을 외쳤다.

2012 피스컵 수원 개막식에는 수많은 VIP들이 찾았다. 피스컵 창시자 문선명 총재와 한학자 총재 내외를 비롯해 문국진 통일그룹회장과 문형진 세계회장도 직접 경기장을 찾아 개막경기를 지켜봤다. 또 김병수 스포츠월드 세계일보 대표이사과 김재한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김을동 국회의원, 스콧 와이 트먼 주한영국대사, 폴 멩크펠트 주한네덜란드대사, 한명관 수원지방검찰청장 등이 피스컵 개막을 축하했다.

박상권 피스컵 조직위원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염태영 수원시장의 환영사가 이어졌고, 김용환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축사가 전해지면서 개막의 순간이 임박했다. 이어 10여분간 성대한 개막퍼포먼스가 펼쳐지면서 분위기가 더욱 달라올랐다.

사물놀이패의 흥겨운 연주를 시작으로 센터서클에는 피스컵기가 깔렸고, 경기장 양진영 측면에는 참가 4개팀의 깃발로 놓여졌다. 이어 사물놀이패의 연주가 시작되면서 이들의 현란한 움직임이 뒤섞여 그라운드를 수놓았다. 그리고 절정에 이르자 불꽃 폭죽과 피스컵이라고 쓰여진 비행선 모양의 애드벌룬이 이륙했다. 동시에 애드벌룬에 달린 우승트로피가 그려진 수십미터의 천이 펼쳐지면서 지켜보는 관중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이후 피스컵 창시자 문선명 총재의 육성 “개!막!선!언!”과 함께 화려한 축포가 터지면서 2012 피스컵 수원이 그 시작을 온 세상에 알렸다.

수원월드컵=권기범 기자  
polestar174@sportsworldi.com



\* Segye Times: Hamburg won 2012 Peace cup



피스컵 국제축구대회 청실자민 문선명(앞줄 왼쪽 세번째)·한혁자(앞줄 왼쪽 네번째) 통일교 훈채 내외분이 22일 저녁 수원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2 피스컵 수원' 국제클럽 축구대회 (총상금 250만달러) 시상식에서 수여한 피스컵을 우승팀인 독일 분데스리가 함부르크SV의 주장 하이크 베스타만(오른쪽)이 치켜 올리며 환호하고 있다. 대회 결승에서 성남 일화룡 1-0으로 누른 함부르크는 우승 상금 150만 달러, 성남은 70만 달러를 각각 받았다. 수원=김범준 기자

\* OSEN: HeungMin Son's Hamburg defeated SungNam and won the championship





Xsports News: Hamburg SV won the Peace cup and took a commemorative photography with Rev. Moon.



\* My Daily: Hamburg SV winning 2012 Peace Cup

### [MD포토] 2012 피스컵 우승 차지한 함부르크SV

12-07-22 22:19

C공감  -가 +가





\*Asia Business Daily: SungNam was defeated by a narrow margin to Hamburg, zero to one. SungNam's first winning of the Peace Cup was frustrated.

## 성남, 함부르크에 0-1 분패...피스컵 첫 우승 좌절

최종수정 2012.07.22 22:26 기사입력 2012.07.22 21:38

가 + - 확대 축소

트 f



골프스포츠부  
김홍순 기자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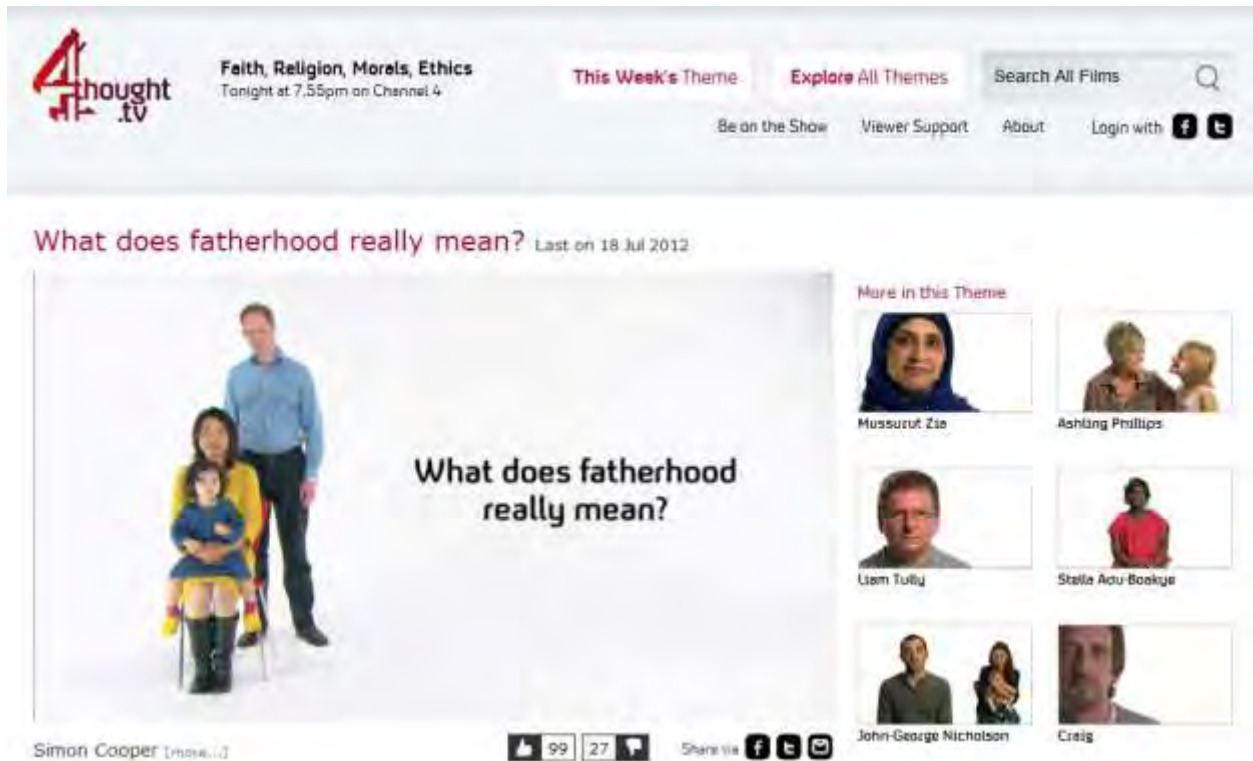


[수원=아시아경제 김홍순 기자] 사상 첫 피스컵 우승에 도전했던 성남 일화가 함부르크(독일)의 벽을 넘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다.

성남은 22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2 피스컵 수원' 결승전에서 마쿠스 베리에게 결승골을 허용하며 0-1로 무릎을 꿇었다. 지난 19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선덜랜드를 꺾고 처음으로 피스컵 결승무대를 밟은 성남은 야심찬 우승의 꿈을 다음 기회로 미뤘다.

\* U.K. Channel 4-4thought.tv: ‘What does fatherhood really mean?’

Simon Cooper, who is former president of FFWPU United Kingdom and present Regional Director of London, interviewed with Channel 4 of England about the meaning of becoming a father as a Unification Church member at the program of ‘What does fatherhood really mean?’



The screenshot shows the 4thought.tv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left is the logo for 4thought.tv, with the text 'Faith, Religion, Morals, Ethics' and 'Tonight at 7.55pm on Channel 4'. To the right are navigation links: 'This Week's Theme', 'Explore All Themes', and a search bar labeled 'Search All Films'. Below these are links for 'Be on the Show', 'Viewer Support', 'About', and 'Login with' followed by Facebook and Twitter icons.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a video player with the title 'What does fatherhood really mean?' and a subtitle 'Last on 18 Jul 2012'. The video thumbnail shows a man (Simon Cooper) standing behind a woman and a child sitting on a chair. The text 'What does fatherhood really mean?' is overlaid on the video. Below the video player are social media sharing icons (Facebook, Twitter, YouTube) and a 'Share via' button. To the right of the video player is a section titled 'More in this Theme' with six small video thumbnails and their respective names: Mussuruf Zia, Ashling Phillips, Liam Tubby, Stella Adu-Bookye, John-George Nicholson, and Craig.

\* Korea Today July, One Korea Cup

“The Second One Korea Cup” was reported at the Korea Today July, one of the monthly magazines in Japan. The One Korea Cup soccer game and symposium was held for the harmony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and for wishing for the unific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e events ended successfully. During the One Korea Cup soccer game, the audience cheered on the players of the South Korea Team and players of North Korea Team with the mind set toward becoming one between South and North rather than winning of the game.



# 在日コリアン和合と南北コリア平相統一を祈る 第2回ワンコリアアカツプ大会開催



ONE KOREA CUP in JAPAN 2012

日時：2012年 6月 8日 場所：何例に何例 何例



ワンコリアアカツプ大会は、在日コリアン和合と南北コリア平相統一を祈ることを目的として、毎年開催されている。今年も6月8日、何例に何例の何例で、約100名の参加者が集まり、盛大に開催された。

当日は、在日コリアン和合と南北コリア平相統一を祈ることを目的として、毎年開催されている。今年も6月8日、何例に何例の何例で、約100名の参加者が集まり、盛大に開催された。

当日は、在日コリアン和合と南北コリア平相統一を祈ることを目的として、毎年開催されている。今年も6月8日、何例に何例の何例で、約100名の参加者が集まり、盛大に開催された。

当日は、在日コリアン和合と南北コリア平相統一を祈ることを目的として、毎年開催されている。今年も6月8日、何例に何例の何例で、約100名の参加者が集まり、盛大に開催された。

当日は、在日コリアン和合と南北コリア平相統一を祈ることを目的として、毎年開催されている。今年も6月8日、何例に何例の何例で、約100名の参加者が集まり、盛大に開催された。

当日は、在日コリアン和合と南北コリア平相統一を祈ることを目的として、毎年開催されている。今年も6月8日、何例に何例の何例で、約100名の参加者が集まり、盛大に開催された。



写真1 試合風景

写真2 試合風景

写真3 試合風景



写真4 懇親会風景

写真5 贈呈式

写真6 贈呈式

## ワンコリアアカツプ 金銭要組職員共インタビュー

ワンコリアアカツプ大会は、在日コリアン和合と南北コリア平相統一を祈ることを目的として、毎年開催されている。今年も6月8日、何例に何例の何例で、約100名の参加者が集まり、盛大に開催された。

当日は、在日コリアン和合と南北コリア平相統一を祈ることを目的として、毎年開催されている。今年も6月8日、何例に何例の何例で、約100名の参加者が集まり、盛大に開催された。

当日は、在日コリアン和合と南北コリア平相統一を祈ることを目的として、毎年開催されている。今年も6月8日、何例に何例の何例で、約100名の参加者が集まり、盛大に開催された。

ワンコリアアカツプ大会は、在日コリアン和合と南北コリア平相統一を祈ることを目的として、毎年開催されている。今年も6月8日、何例に何例の何例で、約100名の参加者が集まり、盛大に開催された。

当日は、在日コリアン和合と南北コリア平相統一を祈ることを目的として、毎年開催されている。今年も6月8日、何例に何例の何例で、約100名の参加者が集まり、盛大に開催された。

当日は、在日コリアン和合と南北コリア平相統一を祈ることを目的として、毎年開催されている。今年も6月8日、何例に何例の何例で、約100名の参加者が集まり、盛大に開催された。

ワンコリアアカツプ大会は、在日コリアン和合と南北コリア平相統一を祈ることを目的として、毎年開催されている。今年も6月8日、何例に何例の何例で、約100名の参加者が集まり、盛大に開催された。

当日は、在日コリアン和合と南北コリア平相統一を祈ることを目的として、毎年開催されている。今年も6月8日、何例に何例の何例で、約100名の参加者が集まり、盛大に開催された。

当日は、在日コリアン和合と南北コリア平相統一を祈ることを目的として、毎年開催されている。今年も6月8日、何例に何例の何例で、約100名の参加者が集まり、盛大に開催された。



写真7 祖承統一

写真8 懇親会風景

写真9 懇親会風景